

대대적 조직개편 예고... 장흥 공직사회 술렁

장흥군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다음달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의 민선 6기 군정 출범을 앞두고 정책방향과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지난 9일 인수위원회(14명)를 구성하고 20일까지 14개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우선 민선 4·5기 관리하고 있는 50여건에 이르는 주요 '현안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지난 9일 첫 인수위원회에서 오는 8월 초

민선 6기 군정 업무보고 물축제·바이오 산단 등 현안사업도 전면 재검토

올해로 6번째 열리는 '정남진물축제' 개최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군 정책방향에 대폭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이명흠 군수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승마체육공원', 은퇴자촌인 '로하스타

운', 300억원이 투자되는 전국 최초인 '통합 의료센터'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인수위 일부에서 총 230억원 규모로 현재 80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목재 전문 산업단지'와 현재 14% 저조한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 산업단지'의 재검토가 불가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인은 군 정책변화에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군 산하 공무원 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9일 인수위원회가 열린 직후 장흥군청 안팎에서는 "현 군수 노선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살생부를 파악 보복인사를 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장흥군 한 공무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데 대부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잠신성이 떨어진 공무원과 지방의원 '관피아' 인사들이 점령한 행세로 인사와 이권개입을 하지 않을까 뒷말이 무성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5년만의 친정 방문 꿈만 같아요"

농협 장흥군지부 다문화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베트남에서 시집와 5년 동안 한 번도 친정을 못가고 늘 그리워 하던 다문화 이주 여성의 소망이 농협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농협 장흥군지부(지부장 박안수)와 정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은 우리농업지킴이 운동본부의 후원으로 지난 16일 한지민·이윤규 부부에게 400만원 상당의 모국방문 항공권과 체류비를 전달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군 기관단체장과 농업인들이 최근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갖고 있다. <영암농협 제공>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

영암농협(조합장 문병도)은 최근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앞 광장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식을 가졌다. 영암농협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농장에서 식탁까지 유통단계를 최대한 줄이는 농식품 공급체계를 확립해 생산자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 고객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장하게 됐다. 영암농협 하나로마트 내 30평 규모의 삼인삼 형태로 구성된 로컬푸드 매장은 신선 과채류 판매대와 냉장·냉동 쇼케이스를 갖췄다. 농가 78명이 현재 100여 가지 품목을 출하하고 있다.

영암농협은 노령화·부녀화된 지역 농업인이 기존에 있는 시설, 텃밭 등을 활용해 계절별, 작목별, 작부체계를 만들어 일거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축산물을 책임 판매해 나갈 계획이다. 문병도 조합장은 "로컬푸드가 농산물 유통 거래에서 중간상을 배제하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적정 가격에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성공적인 유통형태로 정착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영암=문병선기자 moon@kwangju.co.kr



강진 남미륵사 연꽃 향연 세계 불교 미륵대중 총 본산인 남미륵사(주지 석범) 경내 연못에 형형색색의 수련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강진군 군동면 풍동마을에 자리한 남미륵사는 좌대(座臺)에서 불상까지 36m에 달하는 동양 최대크기의 '아미타청동좌불상'으로 유명하다. <강진군 제공>

영암소방서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영암소방서(서장 박용기)는 내년까지 보험 가입을 유예한 소규모 영업장에 대해 다중 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조기 가입 안내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이용자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까지 책임보험

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암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다중 이용업소 화재를 교훈 삼아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도 책임보험에 조기 가입해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과 복구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강진 '영랑 시인 감성학교' 문화콘텐츠 호응

강진군 시문학과 기념관이 개발·운영 중인 '영랑 시인 감성학교' 문화콘텐츠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강진군 시문학과 기념관은 2014학년도 강진교육청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목으로 채택된 '영랑 시인 감성 학교'의 에듀테인먼트적 기능을 강화키 위하여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대거 강사로 초빙, 프로그램의 질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이번 '영랑 시인 감성학교' 콘텐츠의 특징은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이 대거 참여, 교육기능을 가

미한 놀이를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사유의 공감대를 최대한 끌어냈다는 점이다. '영랑 시인 감성 학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2014 창조지역사업 '시가 꽃피는 행복한 마을, 강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1930년대 우리나라 순수서정시를 개척했던 김영랑 시인의 문학적 가치와 시의 감수성을 계승코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말까지 시문학과 기념관과 영랑생가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영암군립 하미미술관 어린이 대상 '뮤지엄 스쿨'

영암군립 하미미술관이 '뮤지엄 스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문화예술 브랜드 가치 창출의 새 장을 열어가고 있다. 하미미술관은 19~20일 이틀간 구림마을의 전통문화예술을 아이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인 '뮤지엄 스쿨'을 열고 있다. '뮤지엄 스쿨'에서는 백제의상 입어보기를 비롯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3차원 입체 왕인 인형 만들기, 미술의 이해를 미션북에 기록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수립문화예술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대학생 50명과 전국 중등미술교사 300명을 대상으로 하정웅 선생 강연회도 마련했다. 지난 4월부터 중국과 제주, 무안공항을 잇는 재일투어 여행상품을 통해 베이징 등 중국 각지에서 매주 2~3회 600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다음달부터는 700여명의 재일투어 중국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미술관은 예상하고 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정음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필드를 인상시키는 쾌적한 연습장!!

- 퍼터, 어프러치 잔디 연습장원비
- 60타석으로 휴게실, 샤워장 원비
- 시간 제한 없이 지속적인 연습 가능

목포시 연산동 614-194
목포골프클럽·호남미니골프장
T(061)273-0087 F(061)279-5517